

Japan Weekly Digest

2012. 12. 01 ~ 2012. 12. 07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최근 엔저의 요인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테이진, 자동차용 탄소섬유 양산
- 샤프, 쿠아르콥과 공동으로 신형 패널 개발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① 주간 경제 초점 : 최근 엔저의 요인

□ 수급구조의 전환과 엔저

- 최근 엔화가 달러당 80엔대를 돌파, 82엔 50전까지 엔저가 진행되고 있음. 아베 자민당 총재가 일본은행에 대담한 금융완화를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긴 하지만, 엔저를 전망케하는 전혀 별개의 요인이 있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음.
- 바로 외환 수급구조의 전환임.
 - 미국 골드만 삭스 회장이 최근 발표한 리포트에서 「수개월간 엔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」고 하여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음. 그 근거의 하나가 수십년만에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된 점임.
 - 골드만 삭스 회장은 1995년 당시에 달러당 80엔 돌파를 예상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.

□ 경상수지 적자요인에 의한 엔저

- 수급구조 전환의 하나는 수출대국, 경상수지흑자국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화임.
- 9월 경상수지가 31년만에 적자로 반전. 경상수지가 적자로 된 것은 수출부진 등에 의한 무역·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자 등 소득수지의 흑자로 메꾸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임.

□ 기초수지 적자요인에 의한 엔저

- 수급구조 전환의 두번째는 기초수지 적자임. 수급요인중 경상수지 적자만 엔저요인이 되는 것은 아님.
- 환율에 대한 수급요인의 영향은, 해외공장의 건설이나 외국기업의 매수 상황을 나타내는 직접투자 수지나, 해외 주식 및 채권의 매매상황을 나타내는 증권투자 수지 등으로 구성되는 자본수지도 불 필요가 있음.
- 일본의 기초수지 역시 최근 적자경향이 선명함.
 - 장기간의 엔고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임. 미국·유럽 경제가 불안해도 엔고행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기초수지 적자에 의한 엔매도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임.

□ 증권투자 증가에 의한 엔저

- 수급구조 전환의 세번째는 증권투자의 변화임.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대규모의 증권투자가 환율을 좌우하기 쉬움.
- 2011년까지는 유럽재정위기나 미국경기의 감속우려를 배경으로 해외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본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림에 따라, 증권투자가 일본 국내로의 유입초과상태, 즉 엔고요인으로 작용하기 쉬웠음.
 - 2011년 10월말 달러당 엔화환율이 75엔32전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도 이러한 엔고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- 그러나 2012년 들어 통화의 흐름이 일변, 증권투자가 해외로의 유출초과, 즉 엔저요인으로 바뀜. 유럽재정위기의 진정으로 리스크회피 움직임이 약해진 한편, 일본의 투자자들이 독일 등의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함.

□ 내년중 달러당 90엔도 가능

- 요컨대, 최근 수급요인은 경상수지도 자본수지도 모두 엔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- 노무라 증권이 수급요인만을 지수화하여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, 엔화 환율의 추계치는 실제 환율과 거의 같은 궤도를 보이고 있음.
- 여기에 노무라증권이 추계한 2013년 이후 경제예측을 적용해보면, 2013년 도중으로 달러당 90엔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것

□ 수급요인 이외의 엔저 요인

- 물론 엔화환율은 수급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.
- 남유럽국가들의 재정불안이 다시 심각해지거나 미국의 감세 실효와 세출삭감이 겹치는 재정절벽 문제가 불안시되는 경우, 리스크회피적인 자세가 급격히 강화되어 엔고기조로 반전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음.
- 그러나 이번에는 수급요인이 엔저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고 있어, 시장에서는 금년 2월처럼 엔고로 회귀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관측임.
- 금년 2월에 일본은행이 물가목표 도입 등 금융완화를 실시한 것을 계기로 한 때 달러당 84엔대까지 엔저가 진전되었으나 그후 엔고로 회귀한 바 있음.

② 산업통상전략

□ 테이진, 자동차용 탄소섬유 양산

- 일본의 화학소재 대기업인 테이진(帝人)이 철보다 강한 탄소섬유를 세계 최초로 자동차용으로 양산.
 - 미국에 약 300억엔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생산능력을 40% 확대. 테이진의 주력 거래처인 미국 GM사가 양산 차종에 사용할 계획임.
- 탄소섬유는 토레이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 보잉사가 여객기에 사용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는데,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이 최대 수요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.
- GM과 테이진 양사는 작년에 제휴하여 양산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. 이번 GM이 탄소섬유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2015년 이후에 발매예정인 주력 차종임.
 - 테이진은 이달 일본 마쓰야마 공장에서 탄소섬유와 수지를 조합하여 구조재를 양산하는 시험장치를 가동하는 한편, GM은 이 부품으로 실차시험을 개시
- 테이진은 일본과 독일에도 탄소섬유공장을 가지고 있는데, 생산능력은 현재 연간 19,000톤(세계시장점유율 20%)으로 토레이에 이어 2위임.
- 탄소섬유를 양판차에 탑재한 것은 GM이 처음임. 일본의 자동차메이커들도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채용은 GM보다 늦어질 전망.
 - GM은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일본보다 선행주자였는데, 탄소섬유 도입 분야에서도 앞서, 경량화에 연비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음.
- 테이진은 탄소섬유 분야에 새로운 생산기술을 확립함으로써 철의 수십배였던 비용을 2배 가까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. 앞으로 생산량이나 탑재 차종이 증가하게 되면, 차량가격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도 탑재할 수 있게 됨.
- 자동차용 분야에서는 토레이가 독일의 다이물러와의 거래를 겨냥, 유럽에서의 생산체제를 강화하고 있음.
 - 현재 미쓰비시레이온을 포함하여 테이진, 토레이 등 일본의 3사가 합계 60%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.

□ 샤프, 쿠아르콧과 공동으로 신형 패널 개발

- 샤프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인 쿠아르콧과 신형 패널을 공동개발기로 함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단말기용으로 액정보다도 소비전력이 적고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패널을 2013년 상반기까지 개발할 계획임.
- 샤프는 쿠아르콧으로부터 많게는 100억엔의 출자를 받아 양산기술의 조기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< 박형패널의 성능 비교 >

MEMS디스플레이	IGZO	유기EL
소비전력		
◎(절반이하)	◎(20%이하)	○
고정밀화		
△	◎	◎
동화면의 표현력		
◎	○	◎
제조비용		
◎	△	△
주된 용도		
태블릿	스마트폰 및 태블릿	스마트폰

종래형 액정과 비교: ◎:우수, ○:동등, △:떨어짐

- 개발하게 되는 「MEMS」 디스플레이는 적·녹·청색의 빛을 발하는 발광다이오드(LED)위에 서터 모양의 개폐장치를 장착한 구조로서 쿠아르콧의 자회사가 개발을 추진해옴.
 - 그리고 샤프는 제어회로용으로 최신 에너지절약 액정패널(IGZO)기술을 제공
 - 액정패널에 없어서는 안될 편광판이나 컬러필터 등이 필요없게 되는만큼, 제조비용이 절감됨.
- 샤프는 금년 3월 대만의 홍하이정밀공업으로부터 9.9%의 출자를 받기로 합의했으나 교섭이 난항. 이에 쿠아르콧과의 자본제휴는 홍하이와의 자본제휴에 대체하게 되는 것이라고 샤프측은 설명

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*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미즈호코퍼레이션은행	2012.12.3	금융	필리핀/BOP은행, 경제구청	업무제휴/일본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
코니카미놀타	2012.12.3	광학측정기	독일/인스트루먼트시스템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약 60억엔
샤프	2012.12.4	액정패널	미국/쿠아르콤	기술제휴/스마트폰용 차세대 패널의 공동개발
오츠카홀딩스	2012.12.4	제약	인도/크라이스라이프사이언스	직접투자/점적사업 매수, 매수가액 약 200억엔
후지츠	2012.12.4	IT	미국/셀스포스	업무제휴/빅데이터 분야에서 협업
카르비	2012.12.4	과자	인도네시아/윙스그룹	자본제휴/합작회사 설립, 자본금 약 22억엔, 출자비율 50%
세이제리아	2012.12.5	식품	중국	직접투자/현지법인 설립, 자본금 2억 4,600만엔
동양엔지니어링	2012.12.5	비료플랜트	나이지리아/정부출자 현지기업의 자회사	수주/플랜트건설, 수주규모 약 650억엔
모리세이키제작소	2012.12.5	계측기기	독일	직접투자/공장신설, 투자규모 약 20억엔
GS유아사, 미쯔비시상사	2012.12.6	발전설비	칠레/AES헤넬	수주/축전시스템 수주, 해외안전으로는 최대규모
미쯔비시레이온	2012.12.6	탄소섬유 관련	미국/알디라	직접투자/기업매수, 매수가액 18억엔
DIC	2012.12.7	식품포장용 잉크	중국	직접투자/생산라인 신설, 투자규모 약 14억엔
테이진, 아사히카세이	2012.12.7	에어백포	중국	직접투자/공동출자회사 설립, 투자규모 11억엔
OSG	2012.12.7	절삭공구	인도	직접투자/공장신설, 투자규모 15억엔
닛싱제분	2012.12.7	제분사업	뉴질랜드/굿맨필더	직접투자/사업매수, 매수가액 약 33억엔

*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4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경제정책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개념 정리』 참의원, 12월1일

*출처: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keizai_prism/backnumber/h24pdf/201210501.pdf

(2) 『한중일FTA와 농업』 농림중금종합연구소, 12월4일

*출처:<http://www.nochuri.co.jp/report/pdf/n1212re1.pdf>

(3) 『수출부진의 배경 모색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12월4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research/r121201japan.pdf>

(4) 『일중대립으로 인한 사업전략의 재검토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12월4일
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publication/research/pdf/research/r121201point.pdf>

(5) 『기업의 투자자금 향방 : 축소하는 국내투자, 증가하는 해외투자』
제일생명경제연구소, 12월4일

*출처: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monthly/pdf/1212_7.pdf

(6) 『차별화를 위한 차별화에서 기능의 차별화로』 일본정책금융공고, 12월6일

*출처:http://www.jfc.go.jp/n/findings/pdf/tyousa_gttupou_1212.pdf

(7) 『관계악화에 의한 일중관계 영향』 다이와종합연구소, 12월6일

*출처:<http://www.dir.co.jp/souken/research/report/japan/sothers/12120501sothers.pdf>